

외국인의 눈에 비친 개항기 복식문화

이 민 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The Costume Culture was seen to the Foreigners in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

Min-Joo Lee

Research Prof.,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2005. 3. 2. 접수; 3. 10. 채택)

Abstract

21th is the century of culture. So each country create new culture from tradition, and at the hub, there is Rapid development of network which makes these things to be able. Also, Korea selected Han-Bok as a symbol of Korea culture, and also Han-Bok internationally. Han-Bok expresses our nation's emotion very well, and also, Han-Bok has universality that can stimulate on world's sensitivity.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arrange and analyze the records of foreigners' feeling who visited in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 as a target of our study. This study will offer materials for study in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 Also, this study will discover the significance and organization of our clothes. Way to wear it and the beauty of our clothes that we didn't even realize or not mentioned on the record because we were too accustomed to our beauty from the ancient time. So, we would like to be basic study that can make our clothes globally and appeal to world's sensitivity by finding the universalit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tems of hat made us be called as a 'world of hat' so, Gat, Galmo(갈모), a women's winter hat(조바위), a fur-lined hood(남바위) and Ayam(아얌) will be obtained the world's focus. Secondly, we checked Belt, breast- tie, rainbow striped sleeves and Pocket which append vitality and movement arrested the foreigners' attention. Thirdly, foreigners were interested with straw shoes and paper shoes.

Key Words: universality(보편성), foreigner(외국인), globalization(세계화), costume culture(복식문화), the period of the opening of a port(개항기)

I. 머리말

21세기는 '문화의 시대' 라고 한다. 문화의 개념도

협회의 예술 및 정신적 산물에서부터 광의의 상징체
계 혹은 생활양식으로까지 확대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산시켰고, 이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소비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각 나라의 고유한 전통은 문화산업의 기본이 되는 문화유산으로 새로운 문화 창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전통을 근간으로 우리의 문화를 세계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을 세계화시키는 데에는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전통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독특성을, 세계적인 보편성에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전통은 오랜 세월 각 민족, 또는 각 나라에 전해 내려온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전승된 물질문화, 사고와 행위의 양식, 사람이나 사건 등에 대한 의미는 각 민족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1세기 우리문화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중 하나로 한복을 선정하였다. 한복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민족과 함께 발전·변화해 온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복식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우리민족의 독특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어 우리 민족, 우리 문화권의 고유한 정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크기의 세계와 맞닥뜨린 것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전 지구를 하나로 엮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되었고 이로써 소위 한국사회의 '국제화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각자가 조선에서 추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선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조선사회를 연구하였고 그것을 정리하였다¹⁾.

우리나라를 거쳐 간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로웰(Percival Lowell)²⁾이 지은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비롯하여 랜도어(A. H. Savage-Landor)³⁾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의 출간은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상 밖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복식의 아름다움도 재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개항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은 타 학문분야에서는 다각도로 연구되었으나 복식분야에서는 그 자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23권의 『한말(韓末) 외국인 기록』⁴⁾과 카르네프의 4인이 지은 『내가 본 조선, 조선인』⁵⁾ 로웰의 『내 기억 속의 조선,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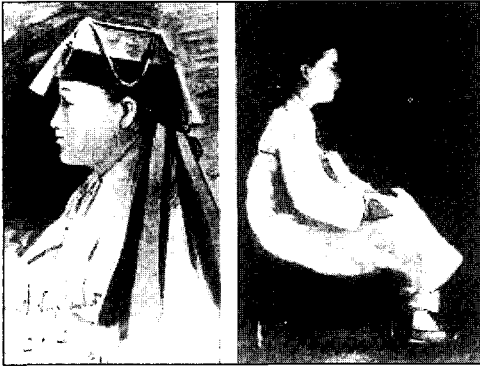
선 사람들』⁶⁾, 조르주 뒤크로의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⁷⁾ 등은 우리 복식에 대한 관심을 충실하게 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개항기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복식을 접한 많은 유럽과 미국의 학자, 여행가, 외교관,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우리 복식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데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본성에 흐르는 보편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 옷에 대한 외국인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복식을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시점에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인들이 우리 옷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 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통하여 당시 복식연구의 자료를 제공함은 물론이러니와 우리 복식에 대한 의미와 구성, 착용방법, 복식미 등 우리 옷이기 때문에 미처 보지 못했거나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어 기록해 놓지 않은 우리복식의 아름다움을 밝혀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소수의 외국인을 통하여 우리복식의 보편적 가치를 찾는다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직업이 외교관, 여행가, 예술가 등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한 인물들이기에 그들이 보낸 우리 복식에 대한 찬사는 세계인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보편성을 찾고 우리복식을 세계화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외국인 기록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한말 외국인 기록은 1882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인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러시아인들이며 이들의 직업은 외교관, 학자, 여행가, 의사, 군인, 선교사 등이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거쳐 간 여행가도 있었지만 33년 동안 우리의 삶을 속속들이 들여다 본 의사도 있었다. 그들이 만난 조선의 사람들도 왕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그들이 접할 수 있었던 복식 또한 궁중복식을 비롯하여 의례복식, 일상복식 등 우리의 복식문화 전반에 걸친 것이다.

프로렌스에서 나서 자란 새비지 랜도어는 '고대 로마의 조각에 나타난 아름다움을 볼만큼 보았지만 한국여성의 복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그림1〉 정장한 여인, 가정의 여인- 새비지 랜도어 작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아름다움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비너스의 곡선미도 한국여성의 의상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극찬하였다<그림1>. 특히 당시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으로 우리 복식에 대한 우리 측의 기록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기록은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복식을 세계화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개항기 외국인 기록 중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다음과 같다.

Ⅲ. 외국인의 눈에 비친 머리장식

개항기 외국인들은 조선을 '모자의 나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림2>. 이는 모자의 종류가 많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선인들에게 모자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외국인들이 기록하고 있는 머리 장식 중 대표



〈그림2〉 다양한 모자들
-E.J Oppert 「금단의 나라 조선」

〈표1〉 한말 외국인 기록

저 자	책 명	국 적	생몰년	체류기간	직 업	성 별
A.H.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영 국	1865~1924	1890	여행가, 탐험가, 화가	남 자
G. W 길모어	서울 풍물지	미 국	1857~?	1886	육영공원 교사	남 자
H. N 알렌	조선 전문기 Things Korean	미 국	1858~1932	22년간	외교관	남 자
I. B.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미 국	1831~1904	1894~1897	여행가, 작가	여 자
L. H° underwood	상투의 나라	미 국	1851~1921	1888~1927 33년	의사	여 자
Percival Lowell	내 기억속의 조선, 조선사람들	미 국	1855~1916	11개월	천체물리학자, 외교관	남 자
W. E. 그리피스	은자의 나라	미 국	1843~1948	1926~1927	학자	남 자
W. R 칼스	조선 풍물지	영 국	1848~1929		외교관	남 자
카르네프의 4인	내가 본 조선 조선인	러시아	정확한 기록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	장교	남 자
조르주 뒤크로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프랑스	1874~1927	1895	여행가	남 자

※ 위 표는 개항기 외국인 기록 중 복식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저서를 중심으로 본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서의 목록이다.

적인 것으로 상투, 망건, 갓, 갈모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당시 외국인들은 조선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까이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까지 접근하고 있다. 그들이 흥미롭게 관찰했고 현재의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조선의 머리장식이 어떻게 꾸며졌으며, 크기는 어떠한고, 용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들의 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상투

주지하다시피 상투란 머리카락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서 감아 맨 것이다. 상투를 트는 것은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남성으로서의 위엄 또한 과시하게 된다.

상투를 틀지 않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 성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존칭도 붙여지지 않으며 정중한 대우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비록 어리다고 할지라도 상투를 틀었을 경우 그는 그 가족의 남성이 받는 존경과 의무를 부여받으며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바치고 기원하는데 한 몫을 차지하며 조상들의 영혼도 그들에게 영광을 부여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그를 보호하고 축복하게 된다. 더욱이 상투를 틀지 않고는 관습적으로 공직에도 오를 수 없었다. 상투는 조선인들의 이름과도 관련이 있어 상투



〈그림3〉 상투-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를 틀어야 관명(冠名)으로 불리게 되며, 관명을 족보에 올렸다⁸⁾

상투의 크기는 <그림3>과 같이 길이 2~3인치, 두께 1인치로 수직이 되게 틀어서 감아 맨다⁹⁾. 따라서 조선인들은 외국인들과 달리 상투를 ‘알(卵)’ 이라고 한다¹⁰⁾.

조선에서 33년을 보낸 언더우드 역시 상투 트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소녀의 머리처럼 갈래로 땅아서 등에 길게 드리운 머리카락을 전통적인 형태로 빗질하여 가마를 중심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면도한다. 그리고 난 후 남아 있는 긴 머리털을 부드럽게 빗질하여 위로 올려 면도된 지점 위로 단단하게 묶으며, 크기는 높이 2내지 3인치, 직경 약 1인치가 되도록 상투를 튼다¹¹⁾.

이 때 정수리 부분을 면도하는 것은 상투의 크기를 알보다 크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며, 특히 서울의 멋쟁이들은 기성에 대한 저항적인 요소와 함께 자기의 개인적인 매력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상투의 크기를 계란보다 더 크지 않도록 치장한다고 하여¹²⁾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머리를 통하여 표현되었으며, 서울이 패션의 중심지였음을 알려준다.

이 외에 상투의 또 다른 용도에 대해 알려주는 재미있는 기록도 있다.

평상시 조선의 부인은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 서서 시중을 들어주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동안에도 일을 하지만 가정문제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나 술에 취한 남편을 집에 데리고 올 때에는 이 잘 묶여진 장치인 상투를 거머잡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¹³⁾.

2. 망건

망건은 서양의 헤어밴드와 같이 대개 검발할 목적으로, 말총으로 만들었으며 뒤 머리털을 잘 가다듬기 위하여 갓 바로 밑에 이마에 밀착되도록 묶는 것이다¹⁴⁾. 그러나 외국인들은 망건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것을 착용하기 위해 겪는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있었다.

망건은 띠의 일종으로 1.5인치 정도 너비의 말 머리털로 만들어, 이마의 중간쯤 까지 내려서 머리

주위에 동인 다음 머리 주위를 돌려서 뒤로 단단하게 묶기 때문에 매우 아프고 이마 주위에 깊이 자국이 남는데, 한 계절이 지나면 영원히 자국이 남거나 혹은 거의 머리 주위에 1/8인치 정도 깊이로 패여서 자국이 남는다¹⁵⁾.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살쩍밀이다. 이는 원래 몸 단장 용구로 머리가 흐트러졌다거나 빠져 나왔을 때 머리칼을 밀어 넣어 머리털을 제자리에 있게 하려는 것으로 작은 뼈나 조개껍질로 만든 칼과 같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망건이 조이는 것을 완화시켜 아픔을 더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⁶⁾.

이러한 고통을 참는 이유는 순전히 멋진 갓을 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치장으로 한 달 쯤 망건을 쓰고 나면 아픔도 가시고 멋진 갓을 위해 더 단단한 바탕을 이루게 된다.

3. 갓

외국인들이 말하는 모자 중의 모자는 단연 갓을 일컫는다. 갓은 성인 남자가 계절과 장소에 관계없이 착용하는 대표적인 형태이다. 로웰¹⁷⁾은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은 밖에 벗어 두지만 갓은 사람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며, 식사 때도 외투는 벗어도 갓은 그대로 머리 위에 머문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갓은 평생을 통해 붙어 다니는 영원한 검은 후광이라고 하였다.

그리피스¹⁸⁾ 역시 조선은 지붕 또는 적어도 우산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확실히 큰 모자를 쓰는 나라라고 하였다.

모자의 지름은 보통 2피트 정도이고 원 주위는 6피트가 되며, 높이는 9인치나 되는 높이이지만 원통의 윗부분은 폭이 3인치 밖에 안 된다. 굴뚝처럼 생긴 이 윗부분은 머리를 씌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식과 통풍의 구실을 한다. 또한 갓은 머리나 코 대신에 섯의 단위 구실을 하기도 한다. 표백한 대나무로 만든 커다란 삿갓은 양반들이 상중(喪中)에 착용하며, 주인이 죽으면 갓은 관가(棺架) 위에 정중하게 놓아두며 장례할 때에는 중요한 부장품이 된다.

갓은 고조선 시대의 한 군주가 사회의 기강을 바

로 잡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다. 즉 호전적인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도자기로 만든 커다란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니도록 하여 싸움이 일어났을 때 도자기가 깨진 것으로 쉽게 구별하고자 하였으며, 그 후로 한국인의 성품이 온화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¹⁹⁾

갓은 말총으로 되어 있거나 흰색의 말총처럼 섬세하게 자른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가는 대쪽으로 된 틀은 그 모양을 잘 간직하며 단단한 힘을 주긴 하지만, 햇빛이나 비바람을 막지는 못한다. 갓은 쓰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비와 바람에 약하고 서로 부딪치면 부서지거나 찌그러지기 쉬워 행동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갓을 머리위에 고정시킬 수 있는 갓끈 역시 형식으로 만든 포백영(布帛纒)은 일단 턱 밑에서 고정시킨 뒤 내려뜨리지만 옥·마노·호박·산호·금패·밀화·수정 등으로 만든 주영(珠纒) 및 대로 만든 죽영(竹纒) 등은 장식으로 길게 가슴 밑까지 내려뜨린 것으로 실용적인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새비지 랜도어가 그린 갓 쓴 모습의 <그림4>는 흰색의 끈을 턱밑에서 묶고 있다. 일반적으로 갓의 끈은 검은색인데 여기에서는 흰색의 끈을 묶고 있는데, 이 역시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새비지 랜도어가 2차 방문한 1890년은 현종(憲宗)의 어머니이자 익종(翼宗)비인 신정왕후(神貞王后)의 국상이 있었던 때로 흰색의 갓끈을 묶었던 것으로



<그림4> 갓 쓴 모습
-Savage Landor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림5〉 영국 웨일즈 지역 여인들의 모자
-<http://www.wales-calling.com/culture>

생각된다. 알렌 역시 상(喪)을 당하면 검은 갓 대신에 표백하지 않은 대나무로 만든 갓을 쓰게 되는데 너무 가난해 새 갓을 살 수 없으면 검은 갓 위에 흰 종이를 발라 사용한다고 하였다²⁰⁾.

새비지 랜도어는 조선의 갓을 평평한 접시위에 놓인 화분과 같이 생겼으며, 웨일즈 여인의 모자와 아주 흡사하다고 하였다²¹⁾. <그림5>는 새비지 랜도어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영국 여인의 모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크 헛은 웨일즈 여인뿐만 아니라 19세기 서양에 자주 등장하는 모자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와 상징성을 갖고 있는 갓은 외형적인 친근함으로 더욱 외국인들에게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비쳤을 것이다.

4. 갈 모

갈모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사용하는 모자이다. 일기예보가 없어 언제 어느 때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모르는 시대에 조선인들의 생명과도 같은 갓이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랜도어²²⁾의 갈모에 대한 설명으로 쉽게 해결된다.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자 허리띠 안에 착용하고 있던 부채와 흡사한 모양의 황색 기름종이로 만든 삼각형의 물체가 원추 꼴로 변하고 이것을 모자위에 씌우자 속이 비치는 갓의 모양이 변하였다.”고 한 것으로 눈이 오자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갈모를 갓 위에 착용함으로써 갓을 보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비습도 갓은 비에 젖으면 망가

지기 때문에, 도포의 소매 안에 비올 때 갓을 씌울 수 있는 방수 모자를 넣지 않고서는 감히 밖에 나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²³⁾고 하였으며, 그리피스 또한 조선 사람들이 흔히 입는 면직물은 쉽게 비에 젖기 때문에 어깨와 등이 비에 젖지 않도록 갈모라는 갈매기 모양의 덧 모자를 갓 위에 꼭 끼게 씌운다고 하였다. 직경이 약 2.5피트(약 61cm) 정도로 끈이 달려 있으며 막대와 손잡이가 없는 작은 우산처럼 생긴 이것을 <갓모>라고도 부른다.

비나 눈이 올 때 갓 위에 쓰는 것으로 우산을 지니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갈모는 갓을 쓰는 사람들의 필수품으로 허리춤에 또는 소매 속에 넣고 다님으로써 생활을 훨씬 더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해준다는 면에서 확실히 효과적이었으며, 외국인 역시 휴대하기 간편하면서도 실용적인 갈모에 대해 좋은 감정을 표현하였다.

5. 발양과 여자모자

랜도어는 여인의 머리 모양에도 관심이 많았다. 머리의 가운데 부분은 가르마를 타고 머리 뒤를 비녀로 묶은 모습은 어느 성직자 모습처럼 아름다워 보이며, 때때로 무거워 보이는 은이나 금속핀 등의 장신구가 머리에 끼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얌은 윗부분은 비단으로 덮여 있는데 반해 중간 이하의 부분은 모자를 쓸 때 거의 땅에 까지 닿을 정도로 뒤에 달려 있는 두 개의 긴 비단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고 모자의 윗부분은 신기할 정도로 넓게 트여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구멍의 양쪽에는 대개 붉거나 검은색의 두 개의 비단술이 달려 있어 단정하게 쓰면 이 모자는 잘 어울린다고²⁴⁾ 하여 아얌과 아얌드림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였다.

칼스 역시 털과 끈으로 꼬인 비단으로, 주홍색 장식 술이 달려 있는 조바위를 가장 매력적이고, 한국적인 것으로 꼽고 있으며, 그가 한국에서 가장 가져가고 싶은 것으로 생각하였다²⁵⁾.

조르주 뒤크로는 털로 테두리를 두르고 붉은 술을 단 남바위를 아기자기한 경관용의 모자라고 하며 이러한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의 수예품과는 견줄 수 없다고 하였다²⁶⁾. 이처럼 조선 여인의 모자는 남자들의 모자와 더불어 외국인들로부터 가장 관심을 받는 것 중의 하나였다.

IV. 외국인의 눈에 비친 의복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복식은 흰 옷과 모자가 가장 인상 깊은 차림새였으며,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의복의 형태는 단순하여 머리 장식이나 발장식을 제외하면 기본 의상은 몇 가지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복식에 매력을 느끼고 찬사를 보내며, 우리 옷의 예술성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어 우리 옷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비숍여사²⁷⁾는 ‘첫인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상과 우리 복식이 어떠한 관계에서 잘 어울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다²⁸⁾.

조선 사람은 색다른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닮지 않았다. 오히려 양자보다 더 멋있어 보이며 일본인보다 체격이 더 좋다. 비록 그들의 평균 신장이 겨우 5피트 4인치(156cm)이지만 흰색 옷은 그들을 실제보다 더 커보이게 하고, 언제나 쓰고 있는 높은 양관 장식의 모자도 키를 더 커보이게 만든다.

비숍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작은 키를 커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흰색이 채택되었으며, 높고 큰 모자 또한 키를 커보이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새로운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의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백 의

조선의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흰 물결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상은 극히 대조적인 양면이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²⁹⁾는 남녀노소 모두 한결같이 흰옷을 입는 이유를 색채 결핍과 슬픈 애상의 미에 대한 표현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의 화가 드라네 지에르는 생동감이 넘치는 백옥 같은 밝은 하얀색부터 거칠고 투박한 흰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하얀색의 하모니는 마치 음식의 향연 그 자체인 것이라고 평하였다. 프랑스인 듀크로 역시 동심어린 조선인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으로 밝은 하얀색은 항상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고 하였다. 우리의 바탕색인 흰색은 어느 색과도 잘 어울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은은하고 맑은 파란색, 연분홍

색, 연두색, 옥색 등의 은은한 색과 자주색, 색동 같은 밝은 색이 흰색과 잘 어울려져 참신한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하고 은은하며 밝은 색들이 흰색과 조화를 이루며 최상의미를 연출시켜 한껏 맵시를 부리고 있음이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밝혀졌다.

그런데 똑같은 흰옷에 대한 감정을 볼 때 서양인은 우리민족의 정서를 때 묻지 않고 활기차며 다양성과 단순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의 눈에는 우리민족이 겪어 온 역사적 경험을 의식하며 흰색을 바라보았기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다. 사물을 보고 미를 평가하는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지만 미학적으로 관찰한 화가나 여행가의 눈에 비친 흰색에 대한 평가가 보다 더 객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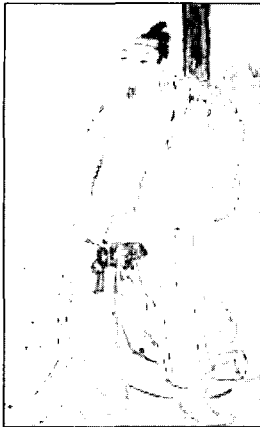
2. 고름, 허리띠

우리 옷의 특징 중 하나는 단추가 없다는 것이다. 랜도어는 직선재단인 우리 옷은 체형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돋보이게 만들어야 할 체형을 오히려 볼품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단추의 간편함 대신 고리장식과 리본을 이용해서 단순한 형태의 의복을 멋지게 표현하였으며, 저고리와 조화를 이루는 옷고름의 색상과 그 구성 비율은 옷에 활기를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외국인들은 이를 보고 옷이라기보다 하나의 ‘예술품’이라고 극찬하였다. 또한 한 쪽 통으로도 사람의 몸 전체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길고 넓은 볼품없는 바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허리띠였다.

매우 넓고 단아하게 주름져 턱에서 발까지 이르는 이 바지를 입을 때에는 우선 이빨로 그것을 문 다음 술이 달린 예쁘고 긴 명주 허리띠로 허리둘레나 그 주변에 동여매어 입는데 허리띠는 보통 오른쪽으로 우아하고 길게 늘어뜨린다. 이 과정이 끝나면 걸어 다닐 때 그 물건이 바지 뒤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부분을 걸어 올린다³⁰⁾.

남자의 바지는 허리보다 약간 위로 치켜 입는데, 허리띠에는 대체로 양쪽 끝부분에 두 개의 커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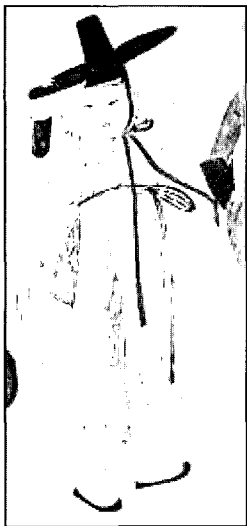
술을 단다. 로웰 역시 아주 화려한 색의 이 술이 없었
다면 한복바지는 그저 밋밋한 통바지가 돼버려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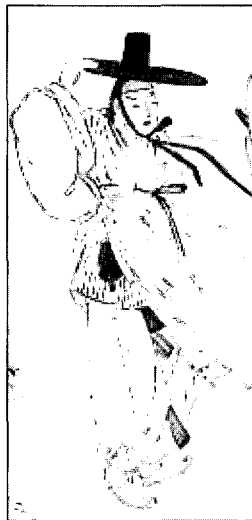
<그림6> 유곽쟁웅(遊廓爭雄)
-신윤복 간송미술관 소장

드리워지는 선의 참맛
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였다³¹⁾.

이처럼 험렁한 바지
를 아름답게 만드는 허
리띠와 그에 달린 술은
우리 옷의 단순함을 보
완해 주는 동시에 옷을
더욱 살리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이는 신윤복
의 <그림6,7,8>에서도
흰옷과 어우러져 있는
띠, 고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야금모행(夜禁冒行)
-신윤복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8> 휴기담풍(携妓踏風)
-신윤복 간송미술관 소장

3. 쓰개류

장옷은 조선의 역대 왕의 소림(小殮)·대림(大殮) 목록에 들어 있다. 또 도포 등과 함께 남자의 포(袍)로 조선 후기까지 사용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여자들도 쓰개용으로 장옷을 사용하였다. 길모어는 여인들의 옷 중에서는 머리 위에 쓰는 녹

색이나 청색 옷감으로 만든 장옷이 가장 특이하며 장옷의 유래가 남자들의 군복 대용이라고 하였다³²⁾. 그러나 내외법이 심했던 조선사회에서 궁중이나 양반층에서는 너울을 사용³³⁾하였으며, 일반 부녀자는 장옷을, 천민 층에서는 천의를 사용하는 등 신분에 따라 쓰개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을 뿐 상하 귀천을 막론하고 여인들은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개류를 착용하였다.

분명 조선후기 여인들의 장옷은 내외용이었다. 외출할 때에는 앞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마 위에서 턱 아래로 둘러 머리에서 길게는 종아리까지 덮어 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장옷을 본 외국인들은 내외용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옷으로 인식하였다.

장옷은 보통 겹은 초록 무명이나 명주였고 안은 흰색이나 분홍색을 대었다. 깃은 좌우가 대칭이며 홍색과 자주색의 이중 고름이 양쪽에 달려 있어 턱 밑에서 앞을 여미게 된다. 이때 소매 끝에 댄 흰색 끝둥과 깃에 달린 흰 동정은 얼굴을 더욱 돋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준다.

랜도어는 실제로 반반하게 생긴 여인들은 바람이 뒤에서 불어와 장옷을 날려 버린대거나 그것을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진 채하는 등 그 외에도 늘 여러 가지 구실을 준비하여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³⁴⁾고 하였다. 칼스 역시 장옷을 입지 않은 여자들은 천연두를 앓았거나 중노동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³⁵⁾고 한 것으로 보아, 외국인들은 장옷으로 얼굴을 가림으로써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여인들의 마음을 역으로 표현한 것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주머니

외국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정확히 말해서 봉제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랜도어는 우리가 입는 옷에 주머니가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조선 사람들은 손이 차가울 때는 그것을 허리띠 아래 바지 속으로 찢러 넣어 따뜻하게 하고 만약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반대편 소매 속에 손을 넣어 열기를 얻는다³⁶⁾고 하였다.

로웰은 별도의 주머니가 없어도 너비가 약 2피

트나 되는 소매는 가히 여행 가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주머니 아닌 주머니에 상인들은 오만가지 상품을, 학자들은 책과 서류를, 관료들은 부채 따위를 넣고 다닌 점에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별도의 주머니에 흥미를 갖고 있었다.

서양의복에서와 같이 봉제선상에 있는 주머니는 편리하기는 하지만 옷의 맵시를 떨어뜨리기도 한다. 오히려 우리 옷에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단조로운 색상의 의복을 활기차게 해주는 다양한 종류의 주머니가 있다.

로웰은 담배쌈지에 관심을 보인다. 담배만은 별도의 주머니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담배라는 것이 순간순간 갑자기 피우고 싶은 욕망을 일으키는 요물인데 소매 속에 넣어두면 여러 가지 물건들과 뒤섞여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그것의 유용성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³⁷⁾.

돈과 담배 따위를 넣고 다니는 작은 명주 주머니는 보통 오렌지색이나 파란색으로 언제나 흰색인 우리의 의상에 단조로움을 없애 주었으며, 여인들도 작은 주머니를 차고 다니는데 이 안에는 보석, 가위, 은장도, 행운을 비는 호랑이 발톱, 향낭 그리고 금으로 만든 작은 고누판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피스는 늙은 양반들은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빗질하다가 빠진 머리카락, 빠진 수염 그리고 손톱조각을 넣는다³⁸⁾고 하였는데, 이는 오낭(五囊)을 채울 머리카락과 손톱을 모아 관 속에 넣어 가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실용과 미를 겸한 장신구인 주머니는 용도에 따라, 사람에 따라 색상, 소재, 문양을 달리 하여 화려로운 색주머니를 차다가 상(喪)을 당하면 남녀 모두 흰 무명주머니를 찬다.

V. 외국인의 눈에 비친 신발

외국인들의 눈에 다양한 모습으로 비친 것 중에 신발을 들 수 있다. 신발은 그 재료에 따라 짚신, 종이신, 가죽신 등으로 구별하였으며, 신발의 형태는 대부분 단화였으며 가끔 반장화도 있었으나, 서양에서와 같은 굽은 없었다³⁹⁾.

짚신은 비교적 삐걱거리지만 도로가 좋다 하더라도 오

랫동안 신을 수 없으며, 버선에 짚신을 신은 여인들의 발은 예뻐 보였다. 특히 전남 순천 근처의 낙안을 떠나면서 그들의 신발이 닳아 짚신을 신어 본 카르네프에 의하면, 가격은 발을 싸는 면포와 함께 15코페이카 정도였으며, 짚신은 신고 다니기가 수월하였으며, 특히 산과 길을 걷기에 아주 편하였다⁴⁰⁾고 한 것으로 짚신이 외관상으로나 실용적인 면에서 모두 좋은 인상을 주고 있었지만, 사실은 오래 신으면, 뒤쪽에 있는 밧줄 때문에 다리가 아파왔다. 따라서 신발을 신지 않을 때에는 짚신과 함께 산 면포로 발을 싸고 있어야 했다.

랜도어는 걸치레를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걷기 위해서 신는 조선의 보통 신발은 참으로 특이한 형태라고 하면서, 종이신을 언급하고 있다. 종이신은 수많은 종이끈들이 거미줄처럼 엮어져 신창과 뒤굽 그리고 신발 등을 형성하는데 이것들은 역시 같은 종류의 더 단단하게 짜서 엮은 종이 줄로 연결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신고 있으며, 특히 마부들이 신었다⁴¹⁾고 하였다.

종이신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신었다고는 하나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짚신처럼 아무나 꼬아서 신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며,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국인들의 신발에 대한 기록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관리들이 궁 안에서 신었던 靴에 대한 해석일 것이다. 길모어 역시 관리들이 등청할 때 왜 어두운 색깔의 장화를 신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로웰이 고종을 알현하기 위해 궁을 방문하고 난 후, 장화를 신는 이유에 대하여, 포장이 안 된 곳은 어디를 막론하고 진흙투성이였는데 그런 진흙투성이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목이 긴 구두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⁴²⁾라고 하여 발목이 없는혜를 신었을 경우에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흙탕물이 튀겨 관복의 경건함을 흠뜨려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모든 관리가 밖에서는 예외 없이 가마를 타기 때문에 보통 신발을 신고 다니지만 궁중에서는 걸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이 긴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왕은 궁내를 걸어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靴를 신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자신의 해석에 대하여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靴는 북방 기마민족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사냥을 하거나 말을 탈 때 신체를 보호하고, 넓은 바지 부리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를 靴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수단에서 출발하였다. 이처럼 靴는 상복(常服)에 착용하는 것으로 집무를 볼 때의 신발인 것이다. 따라서 땅의 문제라기보다는 몸을 간편하게 하여 활동성을 갖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한다.

Ⅶ. 외국인의 눈에 비친 세탁 방법

‘백의민족’이라 할 정도로 흰옷을 입는 조선에서는 시냇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빨래를 하였다. 알렌⁴³⁾은 도시의 주변에는 어디를 가나 조그마한 시내나 샘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있는 매끈한 돌 위에서 여인들이 짝을 지어 방망이로 빨래를 두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뒤크로⁴⁴⁾ 역시 한양은 아주 큰 세탁소와 같아서 다듬이 방망이질 소리가 멎는 일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길모어는⁴⁵⁾ 이처럼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에 옷 꾸러미를 이고 얼굴을 자그마한 옷깃으로 가린 채 가족의 빨래를 하러 성문 밖 개울이나 강가로 걸어가는 수많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으며, 겨울철에도 빨래는 필수적이며, 얼음을 깨트려 세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한 어떤 불만도 결코 들어 보지는 못했지만 틀림없이 겨울철에 빨래를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안타까워하면서 우리의 세탁방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아낙네들은 길이가 1피트에 폭이 3인치 정도의 자그마한 빨래 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늘 사용하는 반질반질하고도 닳아빠진 돌 위에 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리고 하천 바닥의 움푹 들어간 곳에 옷가지를 올려놓고 계속해서 옷의 얼룩을 두드린다. 그리고 옷을 뒤집어서 덜 빠진 얼룩을 빼기 위해 또다시 방망이를 두드린다. 그들은 마치 가락을 맞추는 것처럼 일정하게 방망이를 두드리며 지속적으로 내려치기 위해 방망이를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째짜게 옮겨 잡는다. 단추는 거의 달려 있지 않고 실이나 끈으로 꼬아 만든 매듭으로 옷을 여미기 때문에 방망이는 빨랫감에 아무

런 손상도 가져오지 않는다. 빨래를 말리기 위해 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빨랫감들은 바위나 밭 혹은 수풀 위에 널어 말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탁 방법은 얇은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방망이질을 하는 것은 비벼 빠는 방법보다 옷감을 덜 손상시킨다.

비숍에 의하면⁴⁶⁾ 나뭇재로 만든 잣물에 빨래를 담근 후 햇볕에 말려 다듬이질을 하면 흰 색 면은 흰색 공단처럼 보인다고 하였으며, 칼스도⁴⁷⁾ 옷은 세 번 삶아 잣물로 깨끗이 한 후 흐르는 물에 씻는다고 한 것으로 아직 비누⁴⁸⁾가 보급되기 전 여인들이 식구들의 세탁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다. 이는 표백을 위한 세탁 방법으로서 이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으며, 효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다.

Ⅷ.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1882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복식은 기록할 가치가 있는 문화였음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의 자세한 기록은 현재의 우리에게 당시의 복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 우리의 복식문화를 세계화 시키고자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외국인들의 정확한 묘사를 통해 본 머리장식과 복장, 신발과 빨래방법 등은 현재의 우리가 오히려 흥미롭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며, 우리의 전통복식에서 세계적인 보편성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모자의 나라’라고 불렀다. 멋진 갓을 착용하기 위한 상투와 망건은 물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갓과 갈모, 남바위, 조바위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갓은 그 실용성보다는 멋스러움에 대한 감탄이 대부분이었다. 영국의 웨일즈 여인의 모자와 흡사하여 더욱 친근하게 느낀 검정색의 갓은 흰옷과 잘 어울리는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외국인들은 우리 복식의 단순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저고리와 바지에 나타난 단조로움은

옷고름, 허리띠에 나타난 아름다운 술 등으로 오히려 예술성이 돋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착용하고 있는 백의에 활기를 넣어 주는 색동, 화려한 색의 주머니 등은 축제와 같은 화사함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옷은 본래의 의미보다도 오히려 여인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의도에서 착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신발에 있어서도 짚신과 종이신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버선에 짚신을 신은 여인의 발모양에 감탄하였다.

넷째, 누구나 흰옷을 입는 조선에서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들의 주된 직업이 빨래하는 것이고, 한양 전체가 마치 세탁소를 방불케 했다는 기록과 방망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은 개항기 우리나라의 과학적인 세탁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1) 최덕수 (1997).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 / 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30, pp.127-128.
- 2) Lowell, P. (1855~1916). 미국의 천체물리학자이며, 주일 외교 대표로 일본에 10년간 체류하였으며, 1883년 8월 미국에 처음 파견되는 조선의 수교사절단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귀국하는 사절단과 함께 12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황제의 환대를 받으며 국민으로서 그 해 겨울을 조선에서 보내며 외국인의 시각에서 조선 말기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등 문화 전반을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Chosu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1888) 에 기록하였다.
- 3) Landor, S. A. H. (1865~1924). 영국의 여행자이며, 탐험가이다. 젊어서는 파리에서 공부를 하였으며, 1890년 두 번째 방문을 마치고 그때의 견문을 주로 자료로 하여 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Corea or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은 삽화 또한 그가 직접 그린 것이다.
- 4) 1999년 집문당에서 출판된 ‘한말 외국인 기록’은 총 2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복식에 관한 내용이 있는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상투의 나라』 『서울 풍물지』 『은자의 나라 한국』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조선 전문기』 등을 주된 자료로 삼았다.
- 5) 카르네프 외 4인, 이르제바예브, A., 김정화 옮김 (2003). 러시아 장교 조선 여행기 내가 본 조선, 조선 사람들. 서울: 가야넷.
- 6) 퍼시벌 로웰, 조경철 옮김 (2001).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서울: 예담.
- 7) 조르주 뒤크로, 최미경 옮김 (2001).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 서울: 눈빛.
- 8) 그리피스, W. E., 신복룡 역주 (1999). 은자의 나라 한국. 서울: 집문당, p.324.
- 9) 카르네프 외 4인, 이르제바예브, A., 김정화 옮김 (2003). Op.cit., p.69.
- 10) 길모어, G. W., 신복룡 역주 (1999). 서울 풍물지. 서울: 집문당, p.104.
- 11) 언더우드, L. H., 신복룡, 최수근 역주 (1999). 상투의 나라. 서울: 집문당, p.201.
- 12) 카르네프 외 4인, 이르제바예브, A., 김정화 옮김 (2003). Op. cit., p.69.
- 13) 언더우드, L. H., 신복룡, 최수근 역주 (1999). Op.cit., p.79.
- 14) 이민주 (2003). 속담에 표현된 복식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37. 서울: 민속원, p.196.
- 15) 길모어, G. W.,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104.
- 16)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서울: 집문당, p.57.
- 17) 퍼시벌 로웰, 조경철 옮김 (2001). Op. cit., p.270.
- 18) 그리피스, W. E.,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354.
- 19) 백성현, 이한우 (1999).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서울: 새날, p.27.
- 20) 알렌, H. N., 신복룡 역주 (1999). 조선 전문기. 서울: 집문당, p.145.
- 21)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57.
- 22)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p.59-60.

- 23) 비숍, I. B., 신복룡 역주 (1999).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서울: 집문당, p.246.
- 24)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63.
- 25) 칼스, W. R., 신복룡 역주 (1990). *조선 풍물지*. 서울: 집문당.
- 26) 조르주 뒤크로, 최미경 옮김 (2001). *가련하고 정다운 나라, 조선*. 서울: 눈빛, p.86.
- 27) 비숍, I. B. (1831~1904). 1894년 1월부터 189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선을 방문하였으며 약 11개월간 체류하면서 여행기 이상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28) 백의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첫째, 우리민족의 순수성이나 자연미로 인한 흰색 선호, 둘째, 염색술의 부족, 셋째, 조선시대의 많은 國喪등을 우리민족이 백의를 입게 된 동기로 보고 있다.
- 29) 야나기 무네요시, 장미경 옮김 (1991). *조선의 예술*. 서울: 일신서적.
- 30)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60.
- 31) 퍼시벌 로웰, 조정철 옮김 (2001). *Op. cit.*, p.259.
- 32) 길모어, G. W.,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104.
“언제인가 이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 급히 남자들이 군에 나갔는데 여벌의 옷을 집으로 가서 가져올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낙네들은 남편을 위해 도포를 지어서 남자들과 함께 그들이 있는 곳에 그 옷들을 뒤집어쓰고 가서 재 빨리 남편에게 넘겨 줄 수 있도록 했다.”
- 33) 유희경 (1983).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p.430-431.
- 34)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67.
- 35) 역시 장옷을 입지 않은 여자들은 천연두를 앓았거나 중노동에 시달린 흔적이 역력했다 칼스, W. R.,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36.
- 36)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p.61-62.
- 37) 퍼시벌 로웰, 조정철 옮김 (2001). *Op. cit.*, pp.265-270.
- 38) 그리피스, W. E.,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352.
- 39) 길모어, G. W.,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109.
- 40) 카르네프 외 4인, 이르게바예브, A., 김정화 옮김 (2003). *Op. cit.*, p.136.
- 41) 새비지-랜도어, A. H., 신복룡, 장우영 역주 (1999). *Op. cit.*, p.61.
- 42) 퍼시벌 로웰, 조정철 옮김 (2001). *Op. cit.*, pp.131-133.
- 43) 알렌, H. N.,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145.
- 44) 조르주 뒤크로, 최미경 옮김 (2001). *Op. cit.*, p.79.
- 45) 길모어, G. W.,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109.
- 46) 비숍, I. B.,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331.
- 47) 칼스, W. R., 신복룡 역주 (1999). *Op. cit.*, p.46.
- 48) 우리나라에 최초로 비누가 등장한 것은 19세기 초반으로, 프랑스의 리델이라는 신부가 가져온 '샤붕'이라는 비누이다.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와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누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